대학주보 논조를 통해 본 대학신문 변천사

대학 강좌 특집 마당

대학신문, 다리역할로 거듭나야 한다

배 병 삼
(본교강사 · 점치학)

문사(文士)양성의 요람

근래 자전적 문학 '화두'를 출간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는 최인훈의 소설 '광장'을 모르는 이는 드물 것이다. 그 '광장'에는 주인공 이명준이 대학신문에 실린 자신의 시를 대하면서 느끼는 감동이 절절하게 그려져 있다. 어두운 밤 모조지로 된 원고지에 자신의 속씨를 토로했을 사실이 환한 대낮에 공론화되어 큰 신문지에 검은 활자로 찍혀 휘발성 강한 인쇄냄새를 풍기며 나에게 다가올 때 느껴든 설렘과 부끄러움 말이다. 지신이 타자(他者)에게 말했던 목소리가 문득 자신에게 되돌아 올 때의 그 낯섬과 자신의 속내를 남에게 드러냈다는 데 대한 부끄러움, 그런 묘한 감정들이 촌할된 체험이 대학신문에 첫 글쓰기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민하고 감성적인 소설속의 주인공 명준은 자신의 글이 실린 대학신문을 끌어안고 남이 보지 않는 고즈넉한 곳을 찾아 총총히 허겁지겁 걸어갔으리라고 믿는다.

그랬다. 대학신문은 '학원'이라든지 뭐 그런 중고등학생을 위한 잡지가 없지는 않았으되 흔치 않았던 시절, 한 인간의 속 생각을 20대 초중반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인쇄화, 공론화시켜주던 '역사적' 계기였다. 70년대 말 이전까지 대학신문에 글을 실어 본 필자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그런 경험을 가졌으리라. 짧은 글 한 토막이라도 싣고 난 다음이면, 캠퍼스를 걷는 자신을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숨 막혀 하기도 하고 괜스레 우쭐거리기도 하고 또는 부끄러워했던 그런……. 대학가 술집은 몇 푼 되지 않는 원고료 추렴이 벌어지고, 좀체 쓰기도 싫기도 쉽지 않았던 시사 논단조의 글이 용케 게재되고 나면 필자와 기자는 무용담으로 밤을 새기도 했던 그런 경험들. 그로부터 그는 과거의 어릿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관조하기 시작하였고, 주변의 풍경을 자기화하여 해석하기도 하였으며, 어쩌는 좀 더 반듯해지고 목소리에 힘이 심지면서 드디어 한 성인으로서 자기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시금 말하건대 자기의 글이 대학신문에 인쇄되어 대학사회에 회람될 때, 그는 자신의 속살을 햇빛에 처음 내민 것처럼 발갛게 익어가는 자아를 부끄럽게 지켜보다가 점점 낚의 눈에 단련되면서 커 나가 급기야 시인으로, 소설가로, 평론가로 그리고 학자로 자라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대학신문은 문사(文士)를 길러내는 요람이었다.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총화

애초에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이라는, 지금은 왠지 고가에 나 남아있을 듯한 구닥다리 표현으로 상징되던 시절, 대학신문은 학술과 언론, 언필칭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총화라고 표현되었다. 이것이 대략 60년대와 70년대 후반까지 자주 운위되던 대학과 대학신문의 성격에 대한 교과서적 규정이었다. 이 당시 대학신문의 기자는 문학작품의 세례를 받았던 문학도이거나, 언론인을 꿈꾸는 사회과학도이거나, 전공보다는 운동과 실천이 앞서던 열혈 청년들이 주를 이루었다. 기자들은 글깨나 쓴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었는데 자천 타천의 문사로 자부하는 경쟁자들을 젖히고 신문사에 입사했다는 궁지로해서 걸음걸이도 자못 도도했다. 거기에 술은 아홉다운 동반자였으며 시대의 아픔과 청년의 고뇌를 안주삼아 뱀탕처럼 취하곤 했다. 제국주의 시절의 문사나 지사풍의 언론인들이 가까운 선배로 여겨졌을만큼 시절은 어두웠고 혈기는 방장했던 것이었다.

그들은 대학의 여기 저기를 솔깃거리며 기사꺼리를 찾아 배회하곤 했다. 나이어린 기자들에 대한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의 대접도 쏠쏠찮아서 얼마지나지 않아 학교 행정이나 전문과목들에 대한 식견도 제법 쌓을 수 있었다. 글을 발표할 만한 곳이 적었으므로 원고 청탁도 어렵지 않은 셈이었고, 또 자발적인 투고도 꽤 많았다. 학교 신문사 주최의 문화사업, 이름테면 문학상 제정이나, 바둑대회따위에도 인산인해는 아닐지라도 교내의 이슈감이 되기는 충분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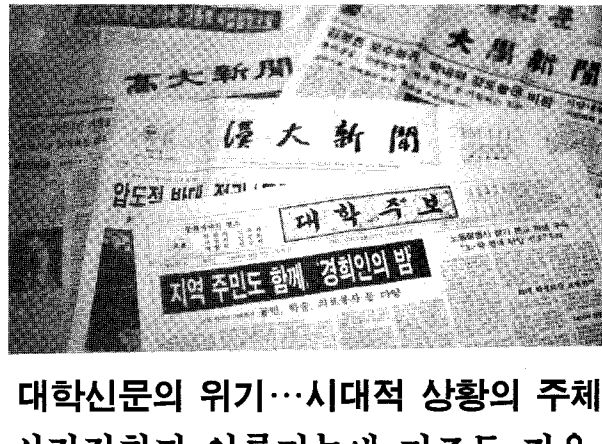
그 시절에도 시끌벅스는 있었다. 신화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향타라고 할 때 당시의 대학신문은 4·19의 신화를 숭앙하고 있었다. 4·19는 미완의 혁명이니만큼 60~70년대의 학생들은 완성된 혁명으로 승화시킬 도덕적 책임을 담당한 사람들이었다. 대학생들은 도덕적이고 청교도적인 규범을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했고 교수는 전인적격이고 고결한 선비의 상과 일치되어 나타났다. 지식인론과 청년문화론이라는 논의가 쟁점이 된 것도 다 그런 도덕적 규범성과 현실적 변화의 틈새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신문의 한자(漢字)도 읽지 못하는 대학생'이라느니 '지팡을 쓰지 못하는 대학생'이라느니 하는 손가락질들도 다 대학생을 유교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전통관념과 근대적 대학 교육사이의 갈등에서 빚어진 그 시절의 한 삽화였다.

우화의 시대, 당위와 현실간 괴리

대학이 이 사회를 이끌 수동체임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기에 위수령과 계엄령 그리고 긴급조치로 전개되던 유신의 어두운 시절에는 자유와 민주로 표상되는 4·19 신화를 스스로의 행동규범으로 삼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신문은 그 행동규범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선단에 서 있었다. 아니 서 있어야 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대학신문은 더욱 청교도적인 기풍을 고양했으며, 교과서적인 원론을 당위적 논법으로 제시하기에 바빴다. 기회 기사의 제목들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법과 정의', '교도성장과 농촌경제', '산업화와 기업윤리', '70년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등이었거나, 또는 '소월시의 항일성', '근대민중운동의 저항성', '다시 생각하는 사월혁명'등 정치적이고 저항적인 기풍을 북돋는 것들이었다. 대학당국과 자기 목소리를 공론화시켜야겠다는 학생기자들 사이의 갈등이 내연하던 것도 이 시절부터였지 싶다. 당위와 현실간의 괴리는 점차 커져갔고 대학가의 허름한 술집에는 학생기자들의 취기와 치기가 부르뇩었다. "광장"속의 명준처럼 자의식의 공개로 해서 부끄러워했던 시절이 50년대, 60년대의 신문이었다면 70년대는 자기의 정치적 지향을 공개함으로써 두려워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70년대의 대학이 나름대로 사회화의 격리, 말하자면 대학의 자율성이니 학생운동의 선도성 열함이 덜할 것이다. 따라서 보수적인 독자들에게 대학신문은 마치 사회주의 각종 이론을 전파하는 도구로 여겨졌고 반면 실제 투사(?)들에게는 한물 간 그런 이야기들이 실리는 매체에 불과했다. 한편 그런 간격은 내부적으로도 대학신문이 이념 실천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학생기자들과 대학신문이 나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선배들 사이에 빚어진 긴장의 산물이기도 했다. 대학신문의 기능에 대한 이러한 신념의 차이는 80년대 마지막까지 신문사 내에 매주 재현되던 갈등이었으며 80년대를 통틀어 이 틈새에서 대학신문은 진통했던 것이다. 그러나 뜬금없이 대학신문은 사회인들로부터 '붉은색이 물든'곳으로 지목되었고 그것은 사실 대학내 사정으로 보면 억울한 것이었지만-진짜 '붉은 색'은 대학신문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고, 또한 학생기자들은 이들과의 이른 경쟁에 나설 만한 역량이 없어 점차 소외되고 있었던 터였으므로-그러나 사회인들이 접할 수 있는 공식적인 매체는 대학신문뿐이었을 것이니 피뢰침 누명이기도 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구의 몰락으로 세계가 변하고, 군사정권이 이른바 문민정부로 대체되면서 국가가 변하고, 포스트 모던이 가깝게 운위될 정도로 사회가 변하고, 공부하는 대학생이라는 표현이 귀에 거슬리지 않을 만큼 대학이 변했다.



교량역할 담당할때

어차피 대학신문은 이제 영욕의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 다시말해 대학의 독점적인 언론 매체로서 대학의 얼굴로 자부하던 영광의 역사와-우리 식으로 하자면 "모든 바람은 대학주보로부터"라는 구호에서 생생하다-실천의 시대에 동참하고자 몸부림쳤던, 그럼으로써 신문의 자율성조차 팽개칠수 밖에 없었던 굴욕의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대학신문은 대학내 독점적 언론 매체로서의 시대가 끝나고 단과 대학, 대학원, 교직원, 노조 뿐만아니라 대학당국 조차 자신의 매체를 갖는 다양화된 시대에 함께 서 있음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실로 대학신문은 현재 생존이 문제가 될 만큼 안팎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찌보면 글의 시대가 끝나고 말의 시대, 영상의 시대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 대학신문의 조락현상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을 논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 역사의 종말을 기록하는 자는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신문은 이 시대의 변화를 바로 읽고 다시금 신문의 본령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생존을 위한 대학신문의 전략을, 결론 삼아 몇 가지로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신문은 어떤 이념의 계몽이 아니라 현실을 역사화하는, 이른바 정치주의에서 문화주의로의 시각전환이 필요하다. 달리 표현하자면 학내의 제반 현상을 객관적으로 수집 정리하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아카데미즘의 기능에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소수인 학생 기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함께 신문지면도 축소되어야 한다. 아카데미즘은 이미 다양한 학술지를 통해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논문은 대학신문이 담당하지 않아도 쉽게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신문은 대학 사회의 언론기능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세째 대학신문의 자율적인 지위를 담보하기 위해 재정의 독립이 시급하다. 그것은 학생 독자들과 학교 당국앞에 나아가 사회 일반에 대학신문이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물적 토대마저도 하면서 자것 앞으로 제기될지도 모르는 대학신문의 무용론에 대처하는 길이기도 하다.

네째 다양한 각 매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종합지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달리 말해서 특종 의식에서 벗어나 일간지들을 종합하는 주간지나 월간지의 성격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로 뛰는 기사의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면 학내의 각종 사적인 매체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적인 매체에는 컴퓨터 통신도 포함될 것이며 그 통신의 내용들도 과감히 지면화함으로써 독자와 학교당국 사이의 교량으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대학신문의 위기…시대적 상황의 주체적 극복 미흡
시각전환과 언론기능에 기조둔 자율성 모색 해야
재정독립·종합지 성격 통한 시대변화 대응 필요

대학신문의 조락(凋落)적 위기

80년대 초반 텔레비전의 칼라화와 일반 신문의 증면이 시작되면서 그와같은 물량주의에 대학신문도 발맞추기 시작했다. 대학신문들은 12면, 16면으로 커졌고, 한글전용과 가로판짜기로 전환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넓혀진 지면은 매주 채우기가 쉽지 않았고 따라서 한 면을 통쨍 차지하는 '큰 글'들이 자주 실리게 되었다. 그 큰 지면들은 주로 각종 실천주의 이론가들에게 좋은 무대를 제공했던 셈이었지만 그들의 글은 이미 실천되어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약간의 손질로 인해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게 되었다. 학생운동이 점차 노동운동으로 전화되면서 대학신문은 더욱 소외되어 갔고 대학신문의 소외는 신문과 기자의 분연을 낳았던 것이다. 이미 대학신문은 당위를 주장하는 청년 지사들의 마당이 아니라 대학내의 소식지로 성격을 바꾸도록 강요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학신문도 변했다. 그러나 대학신문의 변화는 일종의 조락(凋落)으로 현상화되었다. 신화가 사라진 대학에 몸담고 있는 대학신문이니만큼, 그리고 지사와 투사가 사라진 대학의 신문인만큼 변화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학신문 앞에는 독자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대학신문의 기자가 사라지고 있다. 대학신문의 위기가 닥친 것이다. 독자가 없는 신문을 염려했던 것이 80년대라면 이제 기자없는 대학신문의 위기는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실로 오늘 대학신문의 위기는 이유가 없지 않다. 그건 컴퓨터의 대중적인 보급과 매체의 확산, 그리고 글쓰기의 엄격함이 사라진 것이 그 이유의 큰 몫을 차지하겠고 또 이른바 이데올로기가 종언한 시대의 탓도 있겠지만 대학신문이 80년대와 숨가쁜 모방, 정화히 말해서 운동의 수단으로 자신을 지목했던 자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그 원인의 핵심이다.

제6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농협이 전국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농협발전에 관한 푸른 꿈 및 미래가 담긴 참신한 의견을 수렴코자 실시하는 논문공모에 대학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응모자격 : 전국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전공불문)
2. 공모주제 분야 : 다음 3개분야의 내용을 소재로 주제 자유선택
   -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생산기반, 경영규모, 농산물유통, 가공, 가격, 농업인력육성 등)
   - 농촌산업진흥 및 농촌개발 (농촌사회간접자본투자, 농촌지역 2·3차산업진흥, 도농통합적 생활권 개발, 농촌환경오염대책 등)
   - 농민 후생복지증진(교육, 의료, 연금, 문화, 복지, 재해대책, 행정서비스 등)
3. 응모요령
   - 응모매수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의 분량
   - 논문차정 : A4용지에 워드프로세서 이용 (요약문 2-3매 첨부)
   - 제출처 : 농협중앙회 문화홍보부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우편번호 100-707)
4. 응모마감 : '94. 9. 30 (당일 우체국 소인분 유효)
5. 입상자 발표 : '94. 11. 1 (개별 통지 및 농민신문 게재)
6. 시상 : '94. 11월 초 (예정)
   - 최우수작 (1명)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우수작 (2명)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가작 (5명) 상패 및 상금 50만원
7. 기타
   - 응모논문은 간행물이나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학교명이 인쇄된 용지는 사용불가함.
   - 논문 제출시 연락처를 명기 바람 (제학 중명서 1통 첨부)
   - 응모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자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홍보부로 문의바람. (전화 (02) 397 - 5654)

농민의 꿈을 소중히 키우는
농협중앙회

柳 津 監修
酒井善孝 編著
宋 承 鎬 譯著
碩士 大學院入學 大學編入 高考試驗 獨學
英作文法演習 1200題
英文解釋演習 1200題
390Page 8,000원 700Page 11,000원
本書의 內容
SIX PART
영문독해 / 사용어휘 / 신어표현
반의문제 / 어휘문제 / 중문문제
7대문제 A · ★ A, X
★표준문제 B · ★★ 개정
★★표준문제 C · ★★★ 대폭
영어의 독해 발췌 문법 기준에 관한 연습문제 한국어로 서술된 고 최학자 준비요보 이론 나타 한 시험에 부합하도 새길 수 있는 영어의 공고를 위한 입문 학습 활동
• 이용후를 권장합니다!!
• 1,200제 완벽
• 1,200제 단원별
百萬社 2/3 6394
서울 종로6가 267

아르바이트모집

1. 모집부문

모집부문	인원	자 격
A/R	[illegible]명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or 학생증사본

3. 전형방법
1) 내사 또는 전화접수 (수시접수)

4. 기 타
기타 상세한 문의는 전화로 문의바람 (TEL : 985-7744)

SAMSUNG 삼성신용카드(주)
- 피아노앙법소 -

SAM YANG GROUP
창립 1924 70주년 1994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원하십니까?

기업마다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삼양사는 1924년 창업이래
제조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는 지금
대학생 여러분의 의견은 삼양사의 미래에
큰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양

• 주식회사삼양사 • 삼양종기주식회사 • 선일포도당주식회사
• 삼남식품화학주식회사 • 삼양화학주식회사 • 수한제분주식회사
• 전북부자금융주식회사 • 주식회사삼강에디피에이 • 디원 삼한 파이버
• 삼양그룹연구소 • 양평호 • 수원장학회

기업이미지 설문조사

성명 남, 여 대학교(원) 과 년제학
주소 (우 : -)☎ -

* 본 설문조사는 당사의 채용 및 홍보에 관한 정보활용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있는 참여와 답변을 바랍니다.

1.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 ( )
   ①경제적 안정 ②사회적 체면 ③자아실현 ④사회에 봉사 ⑤대인교류
2. 귀하의 졸업후 예정진로는? ---------- ( )
   ①일반기업체 ②국영기업체 ③금융계 ④언론계 ⑤공무원
   ⑥연구기관 ⑦교육계 ⑧자영업 ⑨진학 ⑩결혼
3. 회사선택시 가장 중요시 하는 요인? ---------- ( )
   ①성장성 ②안정성 ③급여수준 ④회사규모 ⑤최고경영자의 면모
   ⑥선배, 연고 ⑦승진속도 ⑧사풍 ⑨입종 ⑩회사의 사회공헌도
4. 기업체를 알게되는 경로중 두가지를 선택하면? ---------- ( )
   ①기업광고 ②기사 ③게롭 ④선배, 친지 ⑤기업설명회 ⑥전문잡지
   ⑦TV, 라디오광고 ⑧산업시찰 ⑨산학세도 ⑩사옥위치
5. 삼양그룹에 대한 귀하의 이미지는? ---------- ( )
   ①매우 좋다 ②좋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나쁘다 ⑤매우 나쁘다
6. 삼양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 경우 그 이유는? -------- ( )
   ①회사의 건실성 ②대외적 공신력 ③노사화합 ④지속적 성장
   ⑤지역사회발전에 기여 ⑥인화적 회사 분위기 ⑦주위사람의 칭찬
7. 삼양그룹의 제품중 두가지를 아는대로 쓰시오.
   ①( ) ②( )

* 응답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응답자중 선착순 2,000명에게는 소정의 참가기념품을 우송해 드리고, 이와는 별도로 250명을 추첨하여 고급기념품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며 학업에 발전있기를 바랍니다.

(자르는 선)

■ 응답하신 설문지는 오려서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곳 : 우편번호 110-725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번지 삼양빌딩 (주)삼양사 인사부 설문조사 담당자 앞
■ 접수기한 : 1994년 6월 10일